

■ 세계화, 시장, 문화소비

: 네스토르 가르시아 칸클리니 인터뷰

에우헤니아 시카보

이 글은 최근 국내에 번역, 출간된 『혼종문화: 근대성 넘나들기 전략』의 저자 네스토르 가르시아 칸클리니의 허락을 얻어 2007년 6월 3일 에우헤니아 시카보(Eugenia Zicavo)와 인터뷰한 것을 번역한 글이다. 가르시아 칸클리니는 세계화 속에서 새로이 재편된 사회문화적 흐름을 ‘혼종문화’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여 호미 바바 등에게 영향을 준 인류학자이자 철학자이다. 아르헨티나 출신이지만 오래 전에 멕시코에 정착하여 현재 메트로폴리탄 자치대학교 교수로 있다. 이 인터뷰는 세계화 속에서의 문화생산과 소비, 출판시장과 사회학의 역할 등을 주제로 시민과 소비의 새로운 연계성을 다루고 있는데, 시민과 소비의 관계는 상호문화성과 더불어 『혼종문화』 이후 가르시아 칸클리니의 주요 관심사였다. 대담자 시카보는 아르헨티나에서 사회학 박사과정에 있다.

시카보: 관광이나 유행 같은 영역에서 새로운 ‘책임소비’ (consumos responsables)가 확산되고 있는데, 소비와 시민의 연계성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르시아 칸클리니: 제가 『소비자와 시민 Consumidores y ciudadanos』(1995)이라는 책을 썼을 때부터 소비와 시민의 연계성은 분명 바뀌어 왔습니다. 관광이나 생태에서 보이는 움직임들은 그러한 변화들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죠. 저는 이 변화의 윤리적인 측면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즉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때문에 특정 장소에 가야 한다거나, 한 달에 이틀 소비를 안 함으로써 다국적기업들에게 타격을 입히거나 패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등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되어 상당히 문제를 안고 수출되었고, 논란이 있는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둔 그런 움직임들은 제겐 순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변화가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죠. 최근 몇 해 사이에 관광과 관련된 두 번의 회의에 참여했는데 그 중 하나가 관광과 문화의 상관성에 대한 바르셀로나 회의였습니다. 유럽의 주요 관광수용국들의 통계가 그 변화를 보여줍니다. 태양과 해변을 찾는 관광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가령, 스페인은 70%정도입니다—, 그 비중은 감소되었습니다. 관광객은 줄지 않았는데 비중이 준 것이죠. 이는 어드벤처 관광, 생태관광, 농촌관광이 늘고, 비록 규모가 아주 작지만 밀교관광, 섹스관광, 혁명관광, 피케테로 관광¹⁾ 등의 여러 가지 형태의 관광도 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관광이 다양화된 건 사실입니다. 관광산업도 역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수많은 해변들이 사람으로 넘쳐나기 때문이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아주 매력적인 다른 형태의 관광이 있기 때문이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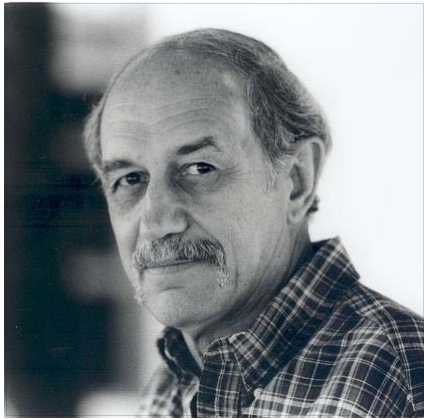
1) [역주] 피켓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시위를 위해 이동하는 여행.

합니다. 이는 더욱 세련되고 풍요로운 관광을 준비하는 새로운 계층들의 교육 수혜와 중산층의 확장과 연관되겠지요.

시카보: 그렇다면 책임소비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해서 볼 때, 시민의 정치적 전략으로서의 소비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가르시아 칸클리니: 책임관광이 극대화된 형태로 생태관광이나 농업관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책임관광을 시민들의 실천과 연계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 혹은 경제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성찰, 또 전통적으로 유희적이고 통속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관광의 역할과 문화적 양상들이 어떻게 맞물릴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성찰로서 말입니다. 그렇지만 답을 구하기 어려운 질문들도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책임 소비를 시민의 실천과 연계시켜 생각할 준비가 덜 되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 프로그램의 질에 대해 혹은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도시공간의 활용 문제를 두고 항의하는 시청자나 소비자들은 있었습시다만.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약간 성장한 것은 문화 공급의 책임자내지 장본인들, 그리고 언론 ombudsman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보충적 행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라틴아메리카의 소수 일간지만이 언론 ombudsman을 두고 있습니다. 스페인 일간지 《엘 파이스》(El País)에 언론 ombudsman이 있고 매주 일요일 글을 게재합니다. 그가 하는 일은 일간지에서 완전히 독립되어 민원을 접수하고 그에 답을 하는 것입니다. 가끔은 흑백논리로 혹은 인종차별적으로 접근한 사건 분석 글의 책임 부서와 대화하며, 독자들 혹은 기사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확신할 순



네스토르 가르시아 칸클리니

없습니다만 콜롬비아 일간지 《엘 티엠포》(El Tiempo)도 옴부즈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다른 나라 경우, 예를 들어 멕시코만 하더라도, 이제야 TV방송의 옴부즈맨 제도의 시행 가능성에 대해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현재 두 개의 문화채널 중 한 곳에서 그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공중파 상업방송과

유료방송인 케이블 방송에서도 이 제도가 반드시 시행돼야 할 것입니다. 언론 매체, 라디오, 텔레비전에 옴부즈맨을 두어야 한다는 대중의 요구내지 이를 촉구하는 경향이 방송국 앞에서 항의하는 소비자 조직들보다 더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옴부즈맨은 일간지가 급여를 주는 직원이기는 하지만 독립성을 지니고, 1, 2년 정도 단기간 활동합니다. 그 직무를 오래 맡지 않습니다. 보통 경력이 있는 기자이거나 저명한 대중적 인물로, 이 일을 잘 이해하면서도 공공성을 고려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시카보: 사회과학에서 회자되는 주제들이나 접근 방식들과 같은 사회과학 연구의 현재상에 대한 진단을 부탁드립니다. 대학들이 무엇을 생산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가르시아 칸클리니: 추방과 검열의 독재 시대가 지나간 후, 복원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기억의 복원 문제 같은 것인데, 제 생각엔 아직도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1960, 70년대에 관한 출판물, 책, 영화들이 쏟아져 나온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적 밀도가 없는 이 현재주의의 시대에서도 흥미로울 만큼 지난 과거와 기억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설정과 연결되는 중요한

재해석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과학의 수준 높은 발전도 있었지요. 무엇보다 인류학과 사회학, 또 커뮤니케이션 연구 부문이 아주 활발했습니다. 하지만 늘 결과물이 훌륭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를 주기적으로 방문한 사람이라면, 아르헨티나 연구를 하지 않더라도, 45세 이하의 젊은 세대에서 세계주의가 극명하다는 인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연구 의제에 있어서 자기 몰입 현상도 존재합니다. 브라질의 경우, 국외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연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에선 우리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 흐름에 대해선 그다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일례로 2001년 위기를 전후하여 수많은 잡지들이 경제적 위기와 관련된 분석을 하였습니다. 위기의 추이, 원인, 전망과 더불어 어떤 사회변화가 있어야 할지 말입니다. 거의 이구동성으로 아르헨티나가 대외관계를 도외시키고 메르코수르에만 전념하는 국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세계화를 말하는 분석가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세계화가 해가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하고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얼마 되지 않았죠. 수십만 명에 이르는 아르헨티나인 이주민이 사는 스페인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에 있는 아르헨티나인 이주민들의 현실에 대한 연구 또는 라틴아메리카나 스페인에서 아르헨티나 영화나 작가들이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주 빈약했습니다. 브라질을 제외하고, 연구 의제에 대한 자기 몰입은 라틴아메리카 전반의 문제입니다. 미국에는 수백 개의 라틴아메리카 연구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왜 아르헨티나엔 미국에 대한 연구자가 거의 없는 것일까요?

시카보: 선생님의 글에서는 세계화를 동질화 과정이자, 이와 동시에 차이와 불평등을 제거하지 못한 채 이것들을 재편하는 세계의 분절적 분할 과정의 총체로 보시는데요, 세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어떻게 문화

시장이 조직되어 왔다고 보십니까?

가르시아 칸클리니: 세계화가 야기한 문제들을 간명하게 말씀드리면 상이한 발전조건에 있는 사회들 간에 존재하는 상호의존성입니다. 인터넷이나 영화에서 보이는 세계화와는 다르게 출판영역에서는 여전히 소비자들의 지지와 결합, 충실성이 여전히 사용하는 언어와 동일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연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스페인어가 다른 언어로 번역이 되는 경우가 드물며 영어나 프랑스어, 독일어 출판물의 상당부분은 스페인어로 번역되지 않습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상호의존성이 출판시장의 연구들에 잘 반영되지 않고 불균형적으로 반영되는 것이죠. 스페인인들은 훌륭한 간행물 목록을 지닌 소규모 출판사들을 어떻게 인수하는지는 알고 있었지만 정작 대부분의 책이 스페인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들 ‘수다카’²⁾를 ‘경이로운 현실’ 관련 자료의 생산자로 볼 뿐 사상의 생산자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에게 적절한 정책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시카보: 라틴아메리카의 문화생산의 확산이 국제적 수준에서는 퇴보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글로벌 출판시장에서 멕시코나 아르헨티나 같은 국가들의 지위가 어떻게 변했나요?

가르시아 칸클리니: 1940~1960년대 사이에 부에노스아이레스와 멕시코시티는 스페인어권에서 출판의 수도였습니다만, 프랑코 시대 말기에 스페인이 성장하면서 이미 추락하고 있었고, 그 이후엔 더욱 심해졌습니다. 도서보급과 프로모션을 위한 경제적 원조

2) [역주] 남미인을 비하하는 표현.

와 대출, 이윤이 보장되는 출판을 증진한 정부의 엄청난 지원과 더불어 성장한 스페인 출판사들의 지략과 전략은 인정해야 합니다. 반면 아르헨티나도 멕시코도 출판과 수출의 가능성에 대한 비전, 또 이 분야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에 대한 비전이 근시안적이었어요. 아르헨티나 도서전이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도서전처럼 괄목할만한 활동들이 있었고, 출판사들 간의 교류와 해외 도서판매, 특히 미국 도서관들에 대한 판매가 이뤄졌지요. 하지만 출판산업을 진흥시키려는 활동은 전반적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불완전했습니다. 통합적 비전이 없었던 거죠.

시카보: 라틴아메리카는 문화 생산물의 소비에 있어서는 근대화 과정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생산과 상업화에 있어서는 주변부적 위치가 더 두드러지고 있다고 봅니다. 문화 수출과 수입 간의 이런 불이익 관계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전략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르시아 칸클리니: 스페인의 상황을 말씀드렸듯이, 더 현대화된 마케팅 전략과 어떻게 세계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아주 정통한 시각을 갖춘 출판산업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아르헨티나에서는 가브리엘라 아다모가 조직한 ‘외국 출판인 초청 주간’ 처럼 몇몇 주목할 만한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또 소수의 출판사들의 생산적 활동을 통해 라틴아메리카나 스페인에도 배포 성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들입니다. 정부의 활동은 미비했어요. 투자보다는 의지만 있었습니다. 게다가 라틴아메리카에는 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합니다. 세계화는 인정하면서도 우리의 영화가, 우리의 책이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는다는 건 모순이죠. 취향과 경향에 대한 마케팅 연구뿐만 아니라 일정기간 지속되는 하비투스에 대한 연구도 이뤄져야 합니다.

시카보: 생산비용이 스페인보다 적게 드는 상황을 고려할 때, 1940년대에서 1960년대 사이에 멕시코와 아르헨티나 출판사들이 누리던 헤게모니적 역할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가르시아 칸클리니: 어떤 측면에서 보면 도서출판은 아르헨티나가 스페인보다 저렴합니다. 특히 지적인 생산물은 더욱 그렇습니다. 작가, 역자, 출판사 직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훨씬 저렴하지요. 하지만 생산에 드는 투입자본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많이 들지요. 그래도 우리가 아직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경쟁력을 십분 활용하고, 출판과 학문에 재원을 더 투입해야겠지요. 아르헨티나는 출판에 있어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보다 고급 인력을 썩히고 있습니다. 이 인력은, 과거에 그랬듯이, 양질의 번역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는 스페인 출판사들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시카보: 선생님의 『도시의 상상력』(Imaginarios urbanos, 1997)에선 글로벌 상업화가 가벼운 소설과 자기계발 지침서들로 출판계를 재편하고 있는 와중에 라우라 에스키벨이나 이사벨 아엔데 같은 작가들을 대표자로 하여 우리 라틴아메리카를 대변시키려는 ‘마콘도 근본주의’(fundamentalismo macondista) 같은 것이 살아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아직도 현재의 경향이라고 보십니까?

가르시아 칸클리니: 그 경향은 1990년대에는 중요했지만 이젠 내리막에 있다고 봅니다. 방금 언급하신 작가들처럼 문학에서 가장 성공을 거둔 거의 모든 여성작가들이 그런 경향을 선택했고, 그 성공에 편승하려 한 남성작가들, 즉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모방자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는 다른 영역에서도 벌어진 일인데, 가령 월드뮤직에 편입될 수 있는 뉴에이지 포크음악의 성공 같은

것입니다. 얼마 전 저는 멕시코에서 글을 하나 썼습니다. 가브리엘 오로스코에 대한 훌륭한 비평서를 소개하는 글이었습니다. 이 비평서는 현재 제1세계에서 가장 주요한 예술비평가들이 오로스코와 한 인터뷰와 그에 대한 비평들을 실은 것인데, 거의 대부분의 글들이 오로스코의 작품이 어떤 의미에서 멕시코성을 재현하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현대 가브리엘은 자신의 세대에서 멕시코적인 것에서 벗어나려고 가장 애쓴 예술가입니다. 멕시코, 뉴욕, 파리에 작업실이 있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인물이죠. 그런데도 오로스코나 기예르모 쿠잇카(Guillermo Kuitca)를 평가하는 데 있어 맨 먼저 국적을 알고자 합니다. 이탈리아 예술가라면 그의 작품이 어떤 의미에서 이탈리아성을 표현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텐데요. 영국인이거나 미국인이란 더욱 안 그럴 것이고요.

시카보: 접속과 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조직된 세계에서 디지털 매체가 문화소비의 가장 선택받는 방법일까요?

가르시아 칸클리니: 그렇죠. 실제로 인터넷은 정보의 민주화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인터넷은 일간지들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게 만들 가능성을 부여합니다. 사회의 특정 계층에게 외국 신문을 포함하여 다양한 신문을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신문을 구입하지 않고도 정보를 비교할 수 있게 해주니까요. 이는 기자나 일간지 운영자가 지닌 무소불위의 권력을 깨뜨리는 일입니다.

시카보: 독서의 양적 측면이 아닌 질적 측면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뭘 읽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르시아 칸클리니: 그것은 그다지 연구되지 않았습니니다. 인터넷

기본 검색 목록만 보더라도 그 수가 엄청납니다. 또 통신회선 수요를 보면 성인사이트, 상업사이트, 선전들의 사이트들이 다양한 언어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거기에 문화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자원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책, 백과사전, 잡지, 일간지들이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고 인쇄지보다 더욱 많이 보니까요.

시카보: 인터넷이 문화적 자산과 문화적 메시지의 유통에 있어 새로운 국면을 구축할 수 있을까요?

가르시아 칸클리니: 물론입니다. 이는 인터넷의 거의 모든 정보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위키피디아인데, 이 백과사전은 우리가 접속하여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책임 방기의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겠죠. 구글에서 학술사이트나 문화 사이트, 예를 들어 작가가 직접 만들지 않은 작가 관련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완전히 통제되지 않은 정보가 뒤섞여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언젠가 아르헨티나 작가에 대한 정보를 찾는데 그의 작품 목록과 여러 나라에서 행한 강연 목록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강연 참석자들이 써놓은 이야기들과, 여러 블로그의 각종 견해들도 찾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뒤섞여 엄청난 정보를 제공하긴 하지만, 체계화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어서 어떤 생산적 목적에 맞춰 방향을 설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을 번역한 이경민은 멕시코 메트로폴리탄 자치대학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